이안의 Media In Buddha ❺ 축구영화 〈컵〉과 〈킥 오프〉



▶한줄요약
월드컵 시즌이다. 월드컵과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는 다수 있으며, 이중 불교영화로 볼 수 있는 작품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컵〉이다. 또한 전후 이라크에서 축구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는 〈킥 오프〉도 함께 감상해볼 영화다.

축구, 깨달음과 희망을 전하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전에서 탈락했을 때 차두리 선수는 눈물을 쏟으며 서러워했지만 월드컵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했다. 높은 수준의 세계 축구를 경험하면서 익히고 얻은 배움도 컸겠지만 차두리 선수는 무엇보다도 크게 배운 것은 '훈련장과 경기장을 오갈 때 손을 흔들어 주는 해맑은 표정의 천진난만한 흑인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본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월드컵 대표로서 저 아이들에게 이런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면서 월드컵에 오기 전에는 남아공하면 위험한 곳,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 배우고 느낀 게 많다고 했다.

월드컵, 프리미어리그, K-리그와 같은 국가 대항전에서부터 스포츠 산업의 황금알인 프로축구리그전은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각축장이 되고 있지만, 한국 축구단이든 유럽 명문 클럽이든 자기 나라 출신 아니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공 다루는 재주 빼어나면 가리지 않고 모아 팀을 꾸린다.

운동 가운데 축구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땅과 공, 그리고 편을 나눠 달릴 사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러니 가난한 나라에서 맨발로 달리면서도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축구로 이름을 떨쳐 당장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꿈 꿀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친구만 있으면 재미있게 놀 수도 있다!

〈컵〉(1999)이라는 영화는 아마 축구와 영화를 좋아하는 불자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축구 영화일 수도 있다. 행복지수라든가 관광지 뉴스라면 몰라도 영화나 축구 쪽에서는 이름을 들어보기 쉽지 않은 나라 부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다가 감독이 스님인데 199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작이 되더니 20년도 더 지난 2021년에는 제1회 불교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빼어난 '불교+축구영화' 이니까.



영화 〈컵〉의 한 장면. 월드컵을 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히말라야 한 지역인 인도 다람살라에는 티베트 임시망명정부도 있고 티베트 출신 승려들도 있고, 그 승려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있다. 라마불교를 믿는 티베트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 아이 때부터 불교공부와 수행을 가르치는 사원인 승가학교가 영화의 배경이다.

중국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서 니마와 팔덴이라는 두 청소년이 이 학교로 온 까닭은 부모님이 달라이라마가 계신 곳에서 불법을 배우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숙하고 경건할 주 알았던 학교는 어수선하고 정신 사납기만 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이던 이 시기, 승가학교라고 월드컵 소식에 어두운 것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어린 승려 학생들은 경전 공부 대신 스포츠잡지에 푹 빠져있고, 숙소 벽에는 부처님 탱화가 아니라 축구 스타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고, 사원 벽에는 '파라과이 이겨라' '독일 만세' 따위 낙서들이 즐비하다.

불법에 정진하리라던 팔덴과 니마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열혈 축구팬인 같은 방 친구 오기엔과 함께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월드컵 준결승전을 보러 간다. 승가학교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보다가 들통이 나서 경기도 끝까지 다 못 보고 쫓겨났는데 찾으러 온 호랑이 사감 스님한테 잡혀 벌까지 받게 됐지만 그렇다고 결승전을 보려는 마음을 접는다면, 축구 좋아하는 아이라고 할 수 없다. 사원에 텔레비전만 있으면 결승전 보는 건 일도 아닌데. 혼자도 아니고 사실 다들 보고 싶어 하는 일이니 사감 스님을 조른다. 사원에 텔레비전을 들이자고.

사실 사감 스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어린 승려 학생들에게서 압수한 축구 잡지가 얼마던가? 그 잡지들을 꾸준히 본 사감 스님은 축구가 일으킨 열망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보스는 주지 스님. 축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스님을 설득하는 것은 사감 스님의 몫이다.

월드컵이 뭔지 묻는 주지 스님에게 사감 스님이 공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그 전쟁은 언제 벌어질 지를 묻자 오늘 밤 자정에 시작된다고 대답한다. 그 묘한 시간에 싸워서 이기면 얻게 되는 지를 묻자 '컵' 을 얻게 된다는 답은 사실이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판타지기도 하다.

주지 스님이 허락을 했지만 텔레비전을 사원에 들이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텔레비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데도 많은 돈을 내야하는데 축구광 오기엔이 나서서 어린 승려들로부터 쌈지돈 모은 돈으로는 턱도 없이 비싸다. 마침 니마가 티베트에서 넘어올 때 엄마가 준 회중시계를 빼앗다시피 해서 담보로 맡기고서야 텔레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결승전을 보게 된다.

'축구 제전' 월드컵 소재 영화 다수
월드컵 시청 위한 티베트 스님 다룬
'컵', 일체개고 가르침 전한 불교영화
전쟁서 축구로 희망 전하는 '킥 오프'
스포츠가 가진 본 의미를 곱씹게 돼

그러나 니마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은 오기엔은 축구를 즐길 수가 없다. 축구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까지 온갖 일을 벌여 드디어 결승전을 보게 됐는데,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열망을 채우자고 니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니마가 고통스러워하는 지를 본 오기엔은 욕망이 고통과 더불어 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니마의 상실을 갚아 주고자 한다.

축구라는 욕망 앞에서 니마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이 곧 일체개고를 깨우치는 순간이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대부분의 대중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은 어차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까닭은 단지 무언가를 뺏고 빼앗기 때문만은 아니다.

욕망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 바라고 또 바라는 욕망이 고통을 일으키는 인연의 고리에 있는 것이다. 축구를 통해서 단순한 이 진리를 깨우치는 오기엔에게는 마침 훌륭한 스승도 있다. 어린 승려만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늘 짐을 쌌다 풀면서 다시 티베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주지 스님은 두고 온 티베트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티베트를 보게 됐다.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탄압받는 티베트의 정치 현실과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망명지에서 불법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불교가 처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컵〉은 티베트 대표팀이 한 번도 진출해 본 적도 없는 월드컵을 통해 크게는 티베트를 둘러싼 정치 현실부터 작게는 어린 나이에 망명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정체성 문제까지 아우른다.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 이란 감독 샤우캇 아민 코르키 감독의 〈킥 오프〉 또한 어린이와 축구 이야기를 통해 살아야 할 곳에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가슴 저린 작품이다.

이라크 북부도시 키르쿠크에 있는 스타디움도 한때는 그라운드를 내달리는 선수들과 경기를 즐기는 관람객들의 환호로 들썩이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첫 장면에서 불쑥 나타난 말은 이곳이 이미 스타디움이면서 스타디움이 아닌 다른 공간이 되어있는 기묘한 상황을 보여준다. 얼핏 황량한 듯 보이는 스타디움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로 공간을 나누어 머물고 있다. 그 생뚱맞은 공간에 마침내 축구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한다. 등에 지단의 이름이 새겨진 축구복을 입은 소년은 한쪽 다리가 없다.

아마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가 되기를 동경했을 그 소년은 앞으로 마음껏 달리지도, 공을 차지도 못할 것이다. 소년은 방금 다리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축구를 하러 스타디움에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 위해.

둘러보면 그곳에서 사는 것은 소년의 가족만이 아니다. 스타디움은 넓고, 넓은 만큼 여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잃고 쫓겨난 난민들의 거처가 돼 있다. 스타디움을 원래 목적에 맞게 경기장으로 써야겠다며 걸핏하면 나타나 윽박지르는 관료가 아무리 험악해도, 갈 곳 없는 난민들은 날마다 어디선가 테러 폭발 사고가 잃어나는 스타디움 바깥 어디로도 떠날 수 없다. 그 안에서 그들은 작은 학교도 꾸리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한다.

난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 팍팍한 삶에서 서로 어울려 축구 시합을 하고, 때때로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보는 정도가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지뢰밭에 떨어진 공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다리를 잃은 동생이 못내 안타까운 형 아수는 손바느질한 천으로 스크린을 만들어 스타디움에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축구 경기 중계를 보게 하지만, 동생에게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다.

동생을 위해, 그리고 여러 난민들을 위해 아수는 아랍, 쿠르드, 아시리아, 터키 출신 아이들의 축구 경기를 기획한다. 방송국을 찾아가고, 관청에 편지를 보내고, 다른 민족을 초대하면서 아수는 꿈을 꾼다. 그 소박한 경기를 통해 스타디움이 스타디움으로 거듭나는 광경을.

〈킥 오프〉는 현실에 대한 영화이며, 꿈에 대한 영화다. 아수가 남루한 스타디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처럼 경기를 보며 함께 응원하고 환호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샤우캇 아민 코르키 감독과 〈킥 오프〉를 함께 만든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서 함께 나누고픈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월드컵의 계절, 저 공을 향한 열망이 일체개고를 깨우치는 순간이 되는 것은 단지 한 경기 이기고 지는 승부 때문이 아니라 그 공 하나에 어떤 의미를 싣는가를 성찰할 때일 것이다. 영화를 통해 축구 하나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어린이들과 나라들이 부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영화평론가〉

원스톱 시스템이란?

수 없이 겪는 법당 현장이지만 심오한 사찰 음향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부근 지방 업자들의 단순 기술시공 결과! ..... 염불 스트레스 누적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명품사운드 훈련강사 서울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 최고 시설로 많은 절약과 후회가 없다는 뜻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들어보세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사찰 시설비용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